

# 與 빠진 '초월회'... 文의장·야4당 "국회가 제역할 해야"

### 국민 분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 목소리...해법은 서로 달라

### "靑이 국회 무시"... 정동영 "3년 만에 촛불이 두 개로 갈라져"

여당 대표가 빠진 채 진행된 국회 '초월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4당 대표는 국민 분열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등 야4당 대표는 7일 오후 국회 사랑제에서 국회의장-야대표 월례회동인 '초월회' 회동을 가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월회가 민생을 도모하는 장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날 회동에 불참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과 야당 대표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촉발된 국민 분열을 국회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만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문 의장은 "지난 며칠 동안 참담한 심정으로 서초동과 광화문, 두 개의 대한민국을 목격했다"며 "국민은 국회와 정치권만 바라보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민생은 내팽겨치고 진영싸움으로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형국"이라고 여야에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서초동도 민심이고, 광화문도 민심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묵묵히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라며 "이대로라면 대의민주주의는 죽는다.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에게 정치를 복원해 국민의 분노를 달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근본적 사법개혁의 완성도 결국 국회 입법이다.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자체안을 내놓든, 국회가 하거나 하면 사법개혁 문제는 없어진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을 행사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해찬 대표가 불참한 대 해선 "신랑이 빠진, 신부만 있는 자리에서 주례를 서는 기분"이라며 아쉬운 심정을 드러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의회정치 실종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간 측면이 적지 않다"면서도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간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권력으로 의회를 짓누려 하는 행태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청와대와 정부가 계속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국회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여당도 청와대만 쳐다볼 게 아니라 백척간두에 선 나라의

운명과 국민 안위를 살피고, 야당과 함께 지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치가 날로 후퇴하는 것 같다. 대화와 타협이 없어지고 제 갈 길만 가는 것 같다"면서 "제3당으로 정치적 힘은 없지만 제1당과 제2당이 정말 나라 생각을 해야 한다. 나만 옳다 하지 말고 같이 우리나라 국정을 염려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관련해서 "도무지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특권과 반칙이 범해졌는데,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느냐는 것"이라며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외친 건데, 그것을 거부하면 얼마나 정의와 공정사회를 부정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당들이 차이와 요구를 좁히고 타협하는 책임을 다하는 대신에, 서로 발목 잡고 선동하는 막과 대결로 치닫고 있는 게 문제"라며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 게 정치권인 만큼, 그 해법도 국회가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 4당 대표들이 7일 오후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심 대표는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 조정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시작하라는 게 대다수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의장께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논의를 위한 5당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제안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3년 만에 촛불이 두 개로 갈라졌다. 어쨌든 수습해야 한다"면서 "대결과 갈등을 수습하는 게 정치의 책무이

고, 개혁은 국민적 요구다. 지금이라도 다시 개혁 엔진의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조국 카드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결국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는 것보다 중요한 게 대통령의 의지"라며 "시대적 요구 함께 하는 개혁국회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윤호 기자

## 北김명길, 귀국길서 재차 '불만' '美, 완전히 빈손으로 나왔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비핵화 관련 북미 실무협상 당시 미국 측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재차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 NHK·닛폰TV 등에 따르면 이번 북미 실무협상에 북한 측 수석대표로 참가한 김 대사는 7일 귀국길에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상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미국 측 발표에 대한 질문에 "사실과 맞지 않다"며 "(미국은) 완전히 빈손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미국 측에서 '2주 이내 재협상'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미국이 판문점 수뇌상봉(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6월30일 판문

점 회동) 이후 99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안(案)도 준비해 갖고 나오지 못했는데 2주일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안을 준비할 수 있겠냐"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북미 간 협상 재개 전망이 나 향후 일정 등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도 "미국 측에 물어 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김 대사는 "앞으로 (북미 간) 회담이 진행되는가 마는 하는 건 미국 측에 달려 있고 또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끔찍한 사변이 일어날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느냐"면서 "두고 보자"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김 대사는 스톡홀름 실무협상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4.4%... '국론분열' 우려에 2.9%p 하락

### 리얼미터, 부정평가 2.1%p ↑ 52.3%...취임후 최고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4.4%로 떨어졌다. 지난 3월 2주차 여론조사 당시 기록한 취임 후 최저치(44.9%)를 경신한 수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m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4일

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10월 1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1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44.4%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2.9%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5일 서초동 촛불 집회는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1%p 오른 52.3%를 기록했다. 주간집계 기준 취임 후 최고치인 9월 3주차(52.0%)를 넘어선 것이다. 긍정평가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인 7.9%p로 벌어졌다. 모르거나 무응답은 0.8%p 증가한 3.3%로 나타났다.

하락세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진영 대립 격화 △보수진영의 개천절 장외집회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물가·집값·수출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 보도 확대 등으로 중도층과 보수층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또 세부 계층별로는 20대와 50

대, 60대 이상,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충청권, 호남, 서울, 경기·인천 등 대부분의 연령층과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는 소폭 상승했다.

정당지지도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동반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하락했다.

민주당은 9월 4주차 주간집계보다 1.9%p 내린 38.3%를 기록하면 30%대 후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당은 2.7%p 오른 33.2%로 나타나 4주 연속 30%대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7일 이후 지난 4일까지 연속 상승하며 0.8%p 오른 5.9%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0.9%p 내린 4.9%로 지난해 5월 4주차(4.8%)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5%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중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민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9년 단 10108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김 용 호 (411210-1657013)  
최 후 주 소 : 전남 함평군 손불면 대전리 431

위 망 김용호 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10월 8일

공 고 인 : 김승근  
주 소 : 전남 함평군 손불면 수연길 2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10월 2일  
공고기간 : 2019. 10. 8~ 2019. 12. 8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 주세요.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 원청의 안전 보강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세력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신제 단체교섭 조율 등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전라남도노사갈등조정지원위원회